

머리 맞대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모색'

4~5일 에너지전환 콘퍼런스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소개

2018-10-04 10:40:58 게재

세계 에너지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전환 의미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독일 덴마크 일본 등 주요국 에너지전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에 참조할 시사점 등을 논의한다.



4일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콘퍼런스'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조연설은 독일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을 지낸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선구자 페터 헤니케 박사가 맡았다. 연설주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독일의 에너지전환'이다.

헤니케 박사는 "에너지전환은 효율성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획기적인 비용감소 등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기후변화정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비용을 훨씬 능가하고 장기적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다는 점은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효율, 운송·난방 부문의 녹색 전력화,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등 3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룰 때 에너지전환이 가능해진다며 △기술의 분산화 △시민참여 △지역적 혜택과 자생력을 에너지전환의 3대 동력으로 제시했다.

이어 진행되는 헤니케 박사와 임성진 전주대 교수의 대화에서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 독일 에너지전환 과정의 갈등 극복사례 등을 논의했다.

4일 오후시간에는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이 2040년까지 장기 에너지 비전을 담은 3차 에기본의 비전과 전략 등 수립현황을 소개한다.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권고안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부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와 네이처는 '미래 에너지 생태계와 신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5일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바우터 반버쉬 GE 아태지역 최고경영자(CEO), 박정호 SKT 사장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 CEO들이 함께 에너지신산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독 에너지전환 포럼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국제심포지엄 등에서 에너지 현안 등을 토론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공급 수요 산업 등 3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 중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 믹스 전환과 함께 가스·열·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를 포괄하는 에너지믹스 최적화를 추진하고, 수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에너지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 소비구조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 관점의 미래 에너지 산업 플랫폼 구현을 추진하기로 했다.